

한우

한우협회 집행부 삭발, 단식농성 진행



소값 하락에 대한 한우농가의 분노가 폭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24일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농협에 한우산업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한 한우협회 부회장, 도지회장, 이사, 감사 등 집행부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 등 농민

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이강우 한우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우농가의 목소리에 정부, 농협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6년째 적자를 보는데도 한우산업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농가는 더 이상의 퇴로가 없다”면서 “한우농가가 요구하는 암소수매, 출하예약제 변경 등 우리의 요구에 정부나 농협이 답하지 않을 경우 장기 투쟁에 돌입하며, 오늘부로 집행부 전원 삭발, 29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30일부터 음성 공판장 앞 출하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위필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생명산업인 한우산업을 대해 아무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 한중 FTA진행에 혈안 돼 농업의 가치를 무시하는 정부는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수급조절 실패로 한우농가들이 줄도산을 하는데, 지원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올 해 농업예산을 5조2천억원이나 삭감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이강우 회장과 김영자 부회장이 먼저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도지회장, 이사, 감사 등 20여명이 잇따라 삭발을 진행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6. 12

한돈

2013 전국 한돈생산자 대회 개최

국내 한돈 생산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화합의 장이자 저돈가와 FTA의 파고를 넘고 한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013 전국한돈생산자대회’가 지난 6월 19일(수)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컨벤션홀(6F)에서 개최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최규성 위원장, 김춘진 의원, 윤명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장태평 마사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전국 9개도 한돈농가,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도축 가공, 유통,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의 한돈생산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병모 2013한돈생산자대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대한한돈협회장)은 대회를 통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돈생산자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화합과 단합을 통해 한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금 한돈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며, 한돈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위기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고기 국산돼지고기 한돈이 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돈농가를 비롯하여,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도축 가공, 유통,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한돈'과 관련한 전국의 한돈생산자들이 하나가 되어 소비자 중심의 산업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한돈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만들자고 밝혔다.

양계

대한양계협회, 춘천닭갈비협회와 MOU체결



국산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춘천닭갈비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과 최시영 춘천닭갈비협회장은 지난 6월 18일 춘천닭갈비협회 사무실에서 이월선 춘천시의회의원, 한범수 춘천시 축산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닭고기 소비촉진과 홍보에 협력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대한양계협회는 춘천닭갈비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홍보지원을 약속했으며 춘천닭갈비협회는 회원들의 국내산 닭고기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국산닭고기를 사용하는 춘천닭갈비협회 회장을 대상으로 국산닭고기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제1회 공동준비위원회 개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7월 18일(목) 축산회관에서 육우농가 대표, 단체임원, 학계, 유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우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제1회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육우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개최된 육우 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육우의무자조금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의안 제1호로 상정된 공동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논의하여 협회 손정렬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아울러 부의안건 의안 제2호로 공동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공동준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협회와 농협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과제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현재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육우농가 및 사육두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의원 선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동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협회 손정렬 회장은 “육우 의무자조금 사업은 국내 육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밝히면서, 원활한 활동추진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육우 의무자조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양봉협회, 산청서 결의대회 가져

(사)한국양봉협회 경남 산청군지부(지부장 정선화)는 지난 6월 27일 덕산 문화의 집에서 침체된 양봉산업 육성과 벌꿀의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허기도 경남도의원, 조규환 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서우 경남지회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장과 회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 4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불량식품 유통 척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벌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통해 다시 한 번 녹색성장 생명산업의 중심임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또한 고품질의 벌꿀생산,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벌꿀 정부인증제도에 적극동참, 사양꿀 생산·판매금지 등의 결의문을 통해 소비자 신뢰회복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성을 전 회원이 공감하며 고품질의 벌꿀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13. 06. 17